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3월 18일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2017. 03.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밑줄 친 표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사람은 입이 벌어서 입맛 맞추기가 어렵다.
-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 ② 입이 거친 그를 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 ③ 이번 일은 내가 허방 짚은 격이다.
-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 ④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 땀을 일부러 많이 내서 피곤을 풀다.

01 ④ 관용적 표현

④ 관용구 '땀을 들이다'는 '몸을 시원하게 하여 땀을 없애다' 또는 '잠시 휴식하다'의 뜻이다. 제시 문장에서는 '잠시 휴식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① **입이 벌다[짹다]**: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 ② **흰 눈으로 보다**: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 ③ **허방(을) 짚다**: ㉠발을 잘못 디디어 허방에 빠지다.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2.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
-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
-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

02 ① 문장의 갈래 - 관형절의 성격

①은 동격관형절, ②,③,④는 관계관형절이다.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곧 관형절이 뜻하는 바가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마디로 '관형절=피수식어'의 구성이다. ① 비가 오=소리
 관계 관형절은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곧 관형절의 일부 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마디로 '관형절≧피수식어'의 구성이다.

-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
→ 철수는 양복을 새로 맞춘다 -- 겹문장의 피수식어 '양복을'이 관형절에서 목적어 기능
-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
→ 나는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 -- 겹문장의 피수식어 '지갑을'이 관형절에서 목적어 기능
-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
→ 윤규가 지하철에서 사람을 만났다 -- 겹문장의 피수식어 '지갑은'이 관형절에서 목적어 기능

3. 주어진 단어의 자음 두 개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낼 때, 모두 옳은 것은?

하나의 음운이 가진 조음 위치의 특성을 +라고 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로 규정한다. 예컨대 'ㄷ'은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① 가로 : [+경구개음], [-후음]
- ② 미비 : [-경구개음], [+후음]
- ③ 부고 : [+양순음], [-치조음]
- ④ 효과 : [-후음], [-연구개음]

03 ③ 음운 - 자음의 특성

조음 위치에 따라 해당 특성을 +, 해당하지 않으면 -로 구분하면 된다.

③ '부고'의 'ㅂ'은 양순음이므로 [+양순음], 'ㄱ'은 연구개음이므로 [-치조음]

① '가로'에서 'ㄱ'은 연구개음이므로 [-경구개음], 'ㄹ'은 치조음이므로 [-후음]

② '미비'에서 'ㅁ'은 양순음이므로 [-경구개음], 'ㅂ'은 양순음이므로 [-후음]

④ '효과'에서 'ㅎ'은 후음이므로 [+후음], 'ㄱ'은 연구개음이므로 [+연구개음]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입술로 소리를 내느냐(양순음, 입술소리) 윗잇몸 쪽에서 소리를 내느냐(치조음, 혀끝소리) 경구개 쪽에서 소리를 내느냐(경구개음) 연구개 쪽에서 소리를 내느냐(연구개음)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느냐(후음, 목청소리)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양순음(입술소리): 두 입술을 이용하여 내는 소리(ㅂ, ㅍ, ㅃ, ㅍ)
- (2) 치조음(혀끝소리): 혀를 윗잇몸 쪽으로 접근시켜 내는 소리(ㄷ, ㅌ, ㄸ, ㅊ, ㅆ, ㅊ, ㄴ, ㄹ, ㄷ, ㄹ)
- (3) 경구개음: 혀를 센입천장으로 접근시켜 내는 소리(ㄱ, ㅋ, ㆁ)
- (4) 연구개음: 혀를 여린입천장으로 접근시켜 내는 소리(ㄱ, ㅋ, ㆁ, ㅇ)
- (5) 후음(목청소리): 목구멍의 공기 흐름으로 내는 소리(ㅎ)

4. 밑줄 친 ㉠을 고려할 때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어 규정」제2부 표준 발음법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4. ㉠ ㅎ(ㄴ,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낱은[나은], 쌀이다[싸이다], 많아[마 : 나], 싫어도[시러도].....

- ① 바지가 다 닳아서[다라서] 못 입게 되었다.
- ②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고[끄리고] 있다.
- ③ 가지고 온 책은 책상 위에 놓아[노아] 두렴.
- ④ 기회를 놓치지 않은[안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

04 ④ 표준발음법

④ ㅎ(ㄴ,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않은'은 [아는]으로 발음한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3월 18일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2017. 03.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친구의 키는 장대 만큼 크다.
- ② 그 친구의 집에는 사과, 감, 귤 등이 많이 있다.
- ③ 그 친구와 연락한 지 세 시간만에 만났다.
- ④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 지 모르겠다.

05 ② 한글맞춤법-띄어쓰기

②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들'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① 장대 만큼 → 장대만큼

'만큼'이 체언 뒤에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낼 때는 보조사로 붙여 쓴다.

참고로, '만큼'은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게 마련이다" "사용한 만큼 돈을 내면 된다" 등이 이런 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일 때도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어른이 심하게 다그친 만큼 그의 행동도 달라져 있었다" "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가 그런 경우다.

③ 세 시간만 → 세 시간 만에

'만'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지난 다음'의 뜻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참고로 '만'이 체언 뒤에서 제한이나 한정, 강조를 나타낼 때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맞는 지 → 맞는지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시간의 경과)'을 나타낼 때만 의존명사로서 띄어 쓰고 그 외에는 어미이므로 붙이면 된다.

	조사, 접미사, 어미는 앞말에 붙여 씀.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씀 (용언의 관형사형+ 의존명사)
뿐	남자뿐이다 (명사+접미사)	웃을 뿐이다
차	연수차 (명사+접미사) (차 : -하려고)	고향에 갔던 차에 (차 : 어떤 기회를 겸해서)
대로	약속대로 (명사+조사)	약속한 대로
만큼	남자만큼 (명사+조사)	애쓴 만큼
만	하나만 (명사+조사) (만 : 한정/비교 뜻)	사흘 만에 (만 : 시간의 경과를 나타냄)
지	집이 큰지 작은지 (어간+어미)	떠난 지 보름 (지 : 시간의 경과를 나타냄)
바	서류를 검토한바 (어간+어미)	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
판	노름판 (합성어를 이루어)	바둑 한 판 (판 :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

6. 문맥을 고려할 때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변명(辨明)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 ②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상 인식(人識)에 영향을 끼친다.
- ③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大處)해야 한다.
- ④ 올림픽은 국위를 선양(禪讓)하기 위한 겨루기의 장이다.

06 ① 한자 어휘

- ① 변명(辨明: 辨 分別할 변/明 밝을 명)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
 - ② 人識(人 사람 인/ 識알 식) → 인식(認識: 認 알 인/ 識 알 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③ 대처(大處) → 대처(對處)
 - 대처(大處: 大 큰 대/處 곳 처) 도회지(都會地),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
 - 대처(對處: 對 대할 대/處 곳 처)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 ④ 선양(禪讓) → 선양(宣揚)
 - 선양(禪讓: 禪 선 선/讓 사양할 양)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 [유] 양위(讓位)
 - 선양(宣揚: 宣 베풀 선/揚 날릴 양)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
- [동음이의어]
- 선양(煽揚: 煽 부채질할 선/揚 날릴 양) 부추기어 일으킴.

7.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을[水]'이 현대 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가 '어리석다[愚]'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幼]'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이라고 한다.

- ① 사회성 ② 역사성 ③ 자의성 ④ 분절성

07 ② 언어의 본질

'·'가 소멸된 것, 원순모음화(을[水]→물), 어휘의 의미 변화 등은 언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하며 변화하는 역사성이다.

- ① 사회성: 언어의 말소리(또는 문자)와 의미의 관계는 자의적이지만, 일단 이것이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지고 나면 개인이 함부로 그 관계를 바꿀 수 없다. 즉, 언어 기호는 같은 언어 사회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말소리로 나타내자는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 ③ 자의성: 언어는 일종의 기호이며, 언어의 내용(의미, 뜻, 기의)과 언어의 형식(말소리, 형태, 기표)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며 절대적이지 않는데 이것을 자의성이라 한다.
- ④ 분절성: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분절하여 표현하는 특성이다.



8.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리끼 :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 ② 무람없다 : 생김새가 볼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
- ③ 국으로 : 제 생긴 그대로
- ④ 짜장 : 과연 정말로

08 ②

②의 '무람없이'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게'의 뜻을 지닌 부사이다.

- ① 자리끼: [명사]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 ② 무람없이: [부사]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게.
- ③ 국으로: [부사] 제 생긴 그대로. 또는 자기 주제에 맞게.
- ④ 짜장: [부사] 과연 정말로.

9. 짝지어진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언인 것은?

- ①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
↳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 ②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
↳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
- ③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 ④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09 ①

- ①의 '보거라'는 보조동사, '보다'는 보조형용사로서 모두 보조용언이다.
- ②의 '먹었다'는 보조동사, '먹자'는 본동사이다.
- ③의 '드리렴'은 본동사, '드린다'는 보조동사
- ④의 '말고'는 본동사, '말았다'는 보조동사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별

한 문장에 두 개의 용언이 나타날 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개의 용언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된다. 독립된 두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의미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성립하면 본용언이 사용된 문장이고, 성립되지 않거나 본래의 의미구조가 달라지면 보조용언이 사용된 문장이 된다.

- ①
 -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
↳ 이 책도 한번 읽어라(○) - 본용언
↳ 이 책도 한번 보거라(×) - 보조용언
 -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 밖의 날씨가 매우 덥다(○) - 본용언
↳ 밖의 날씨가 매우 보다.(×) - 보조용언
- ②
 -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
↳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다(○) - 본용언
↳ 야구공으로 유리를 먹었다.(×) - 보조용언
 -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

- ↳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이자(○) - 본용언
↳ 음식물을 먹자.(○) - 본용언

③

-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 이것(을) 가지다(○) - 본용언
↳ 너희 아버지께 드리렴.(○) - 본용언
-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다(○) - 본용언
↳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드린다.(×) - 보조용언

④

- 이것(은) 말다(○) - 본용언
-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졌다(○) - 본용언
↳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말았다.(×) - 보조용언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별

- 1) 용언이 두 개 이상 연결됐을 때, 앞의 것은 무조건 본용언이다.
- 2) 두 번째 이하의 용언 중 다음의 경우는 보조용언이다.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을 때. ㉡단독으로 서술된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쓰인 뜻과 다를 때.
- 3) 두 번째 이하 용언이 단독으로 서술어가 되고 의미도 변하지 않으면 본용언이다. (이때는 겹문장이 된다.)

10.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 낮익은, 철수의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 휴가를 낸 김에 며칠 꼭 쉬고 온다?
- ㉣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 ① ㉠ : 심표를 보니 관형어 '낮익은'은 '철수'와 '동생'을 동시에 수식함을 알 수 있다.
- ② ㉡ : 마침표가 없는 것을 보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제목이나 표어임을 알 수 있다.
- ③ ㉢ : 물음표를 보니 의문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작은따옴표를 보니 '일이 다 틀렸나 보군.'은 마음속으로 한 말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①

- ① ㉠의 심표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관형어 '낮익은'은 '철수'는 수식하지 않고, '동생'만 수식한다.
- ②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 ③ 의문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물음표를 쓴다.
- ④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큰따옴표(" ")를 쓰지만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는 작은따옴표(' ')를 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3월 18일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2017. 03.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1.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웠다.
- ② 일이 다 잘되서 다행이다.
- ③ 입구에 붉은 글씨가 씩어 있다.
- ④ 생각컨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11 ③

③ ‘씩어’는 ‘씩(쓰이)+어’의 구성이다. 이때 ‘씩다’는 ‘쓰이다(‘쓰다’의 피동사)’의 준말이다.

① 가까웠다. → 가까웠다.

‘가깝(어간)+었다=가까웠다’의 구성으로, 어간의 끝음 ‘ㅂ’이 ‘ㄱ’로 변하는 ‘ㅂ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② 잘되서 → 잘돼서

‘잘되(어간)+어서(연결어미)=잘돼서’이다. ‘되-’는 ‘되다’의 어간이고, ‘돼’는 ‘되다’의 활용형인 ‘되어’의 준말이다.

[참고]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의 뜻을 나타내는 문맥에서는 동사 ‘잘되다’를 쓴다.

그리고 부사 ‘잘’이 ‘되다’를 수식하는 ‘잘 되다’가 쓰일 수 있다.

예 이 기계는 조그만 충격에도 파손이 잘 된다.

[참고] ‘안되다’, ‘잘되다’, ‘잘하다’ 띄어쓰기

‘안되다’와 ‘잘되다’는 반의어로,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 지 않다.’를 뜻하는 ‘안되다’는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된다./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와 같이,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를 뜻하는 ‘잘되다’는 ‘농사가 잘되다/공부가 잘되다/훈련이 잘된 군인/바느질이 잘된 양복/일이 잘돼 간다.’와 같이 쓰인다. 그리고 ‘잘고 훌륭하게 하다.’를 뜻하는 동사 ‘잘하다’가 ‘공부를 잘하다/살림을 잘하다/일을 잘하다/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잘해야 나라가 산다.’와 같이 쓰인다.

④ 생각컨대 → 생각건대

‘-하다’ 앞의 받침이 ‘ㄱ, ㄷ, ㅂ’로 소리가 날 경우에는 ‘-하’가 통째로 줄어들고, 그 외의 소리일 경우에는 ‘ㅎ’이 남아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거센소리가 된다. 따라서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건대’가 된다.

1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사면(四面)으로 두른 것은 토끼 잡는 그물이고, 토끼 은신 수풀 속 쫓는 것은 초동(樵童)이라. 그대 신세 생각하면 적벽강에 전패(全敗)하던 조맹덕의 정신이라. 작은 눈 부릅뜨고 짧은 끈지 뒤에 끼고 절벽상에 정신없이 달아날 제…….

- ① 小隙沈舟 ② 魂飛魄散 ③ 亡羊補牢 ④ 干名犯義

12 ②

제시 지문은 ‘수궁가’의 일부이다. 토끼가 그물과 초동(樵童)을 피해 몹시 놀라 도망가는 상황을 제시한 부분이므로 ②의 ‘혼비백산(魂飛魄散)’이 가장 적절하다

① 소극침주(小隙沈舟) : 小 작을 소/隙 틈 극/沈 잠길 침/舟 배 주) 조그만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게을리 하면 큰 재앙이 닥치게 됨을 이르는 말.

② 혼비백산(魂飛魄散) : 魂 넋 혼/飛 날 비/魄 넋 백/散 흩을 산)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유] 백산(魄散), 혼불부신(魂不附身), 혼불부체(魂不附體)

- ③ 망양보뢰(亡羊補牢) : 亡 망할 망/羊 양 양/補 기울 보/牢 우리 뿔) 양을 잃고서 그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 실패한 후에 일을 대비함. ㉡ 이미 때가 늦음.
- ④ 간명범의(干名犯義) : 干 방패 간/名 이름 명/犯 범할 범/義 옳을 의) 명분을 거스르고 의리를 어기는 행위.

13. 다음 자료가 간행된 시기에 나타난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太子 | 道理 일우사 조개 慈悲호라 헝시느니
 「석보상절」

- ① ‘ㅛ’와 ‘ㄹ’이 단모음화된 시기이다.
- ②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가 쓰였던 시기이다.
- ③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 ④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이다.

13 ①

『석보상절(釋譜詳節)』은 1447년(세종29년)에 조선에서 만들어진 석가모니의 일대기이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구별하면 된다.

- ① ‘ㅛ’와 ‘ㄹ’은 세종 당시(15세기)에는 이중모음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 단모음이 되었다.
- ② 합용병서는 중세국어에서 근대까지 쓰였다.
- ③ 15세기의 주격 조사는 받침 뒤에서 ‘이’가 쓰였고, 주격 조사 ‘가’는 17세기(임란 후) 이후 쓰이기 시작했다.
- ④ 15세기는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진 시기이다.

※제시 글의 현대어 해석

태자가 도리를 이루시어 자기가 자비하리라 하시나니

[참고] 석보상절(釋譜詳節)은 1447년(세종29년)에 조선에서 만들어진 석가모니의 일대기이다. 1446년에 서거한 소헌왕후(昭憲王后, 세종의 정실)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훗날의 세조)이 만든 책이다.

인쇄에 사용된 한글 활자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점, 석보상절의 한국어 문장이 다른 연해 자료와 다르게 한문을 직역한 문체가 아닌 점, 최초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부기한 점, 이 책의 표기법이 그 이후의 한글 표기법의 전범이 된 점 등을 볼 때 우리나라 15세기 중엽의 한글과 한자음 번역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또한 한글로 표기된 최초의 산문 작품이며, 문장 또한 세련되고 유려하여 후대의 한글 고전소설 편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불경 언해서로 세조와 그 주변 인물들이 지니고 있던 숭불 의식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활자본 책으로서의 가치 또한 매우 높게 평가받는다.

2017. 03.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4. 다음 작품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지니는 것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후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후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① 한용운, 「님의 침묵」
- ②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③ 서정주, 「국화 옆에서」
- ④ 김소월, 「진달래꽃」

14 ④

작자·연대 미상의 고려가요 「가시리」로 임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노래했다. <귀호곡 歸乎曲> 이라고도 하며,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이별의 정한을 애뜻하고도 절절하게 노래하는 이 작품의 정서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도 맥이 닿아 있다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대표작으로는 속요 '서경별곡'과 송지상의 '송인', 민요 '아리랑', 황진이의 시조,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초혼' 등이 있다.

15. 문맥을 고려하여 ㉠~㉣을 가장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

길동이 ㉠체읍주왈(涕泣奏曰), “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 부형(父兄)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 ㉡팔자 기박하여 천생(賤生)됨을 평생 한(限)일 뿐더러 가(家) 중에 시기하는 사람을 피하여 정처 없이 다니다가 천만 몽매(蒙昧)로 몸이 ㉢적당(賊黨)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붙였더니, 죄명이 이에 미치었사오니 명일에 소제(小弟) 잡은 연유를 장계하옵고, 소제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 하며, 담화로 날을 새우고 평명(平明)에 감사 길동을 철쇄로 결박하여 보낼새 ㉣참연(慘然)히 낮빛을 고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 ① ㉠ : 길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짓고 있군.
- ② ㉡ : 길동이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군.
- ③ ㉢ :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하겠군.
- ④ ㉣ : 길동이 감사를 결박하고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군.

15 ③

㉢의 '적당(賊黨)'은 '도둑의 무리'를 뜻하므로 길동이 한때 도둑의 무리와 함께 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뒤 문장에 이어지는 죄명을 이에서 유추할 수 있다.

- ① ㉠ : '체읍(涕泣)'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운다'는 뜻이다. 따라서 길동이 웃음을 짓고 있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
 - 체읍(涕泣: 涕 눈물 체/泣 울 음)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
 - 주왈(奏曰: 奏 아뢴 주/曰 가로 왈) 아뢰어 말하기를
- ② ㉡ : 길동은 천하게 태어나 운수가 사납다고 한탄하고 있다.
 - 기박(奇薄: 奇 기특할 기/薄 엷을 박) 팔자, 운수 따위가 사납고 복이 없음.
 - 천생(賤生: 賤 천할 천/生 날 생) 천첩에게서 난 자손. 천출(賤出)
- ④ ㉣ : 길동이 감사를 결박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길동을 결박하여 보내니 길동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
 - 참연히(慘然-: 慘 참혹할 참/然 그럴 연) 슬프고 참혹하게.

16.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체계적 국제 운송 및 통신 시스템의 도입으로 타 문화권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들과 식품들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링곤베리와 파인애플 주스는 코카콜라에,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은 청바지에, 고원에서 자라던 토종 소들은 저지 젖소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다양성이란 것은 한 회사에서 만든 열 가지의 청바지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 ①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
- ②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
- ③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
- ④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켰군.

16 ②

제시 지문에서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7. 밑줄 친 부분에 사용한 표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3월 18일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2017. 03.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향수」 중에서 -

- ①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 이것은, / 치명적인 냄새
- ②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
별 발 디디는 소리
- ③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 젊은 아버지의 서너런 옷자락에 /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 ④ 피아노에 앉은 / 여자의 두 손에서는 / 끊임없이
열 마리씩 / 스무 마리씩 / 신선한 물고기가 /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쏟아진다.

17 ③

제시 부분은 청각적 대상인 황소의 울음을 ‘금빛’이라는 시각적
 방법으로 나타낸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 나타나는 시구이
 다. ③의 ‘아버지의 서너런 옷자락’은 촉각적 심상이다.

① 김선우, ‘감자 먹는 사람들’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 이것은, / 치명적인 냄새’는 ‘냄새(후각)가 담장
 을 넘어 달겨드는(시각)’는 표현이므로 공감각적 심상(후각의 시각화)이
 다.

② 김선우, ‘단단한 고요’

‘햇별 발 디디는 소리’는 멍석 위에 놓은 도토리 알이 햇빛에 말라 가는
 모습을 소리로 나타내어 시각의 청각화가 나타났다.

④ 전봉건, ‘피아노’

‘피아노에 앉은 / 여자의 두 손에서는~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쏟아진
 다.’는 피아노의 선율(청각)이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는 표현으로, 청각의
 시각화이다.

**18. ㉠~㉣ 중 밑줄 친 문장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의미가 가장 가
 까운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
 을 비약적으로 ㉠ **확장** 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
 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양식 등 사회 전반
 에 걸쳐 혁신적인 ㉡ **변화** 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 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회학자 드 세토(De Certeau)는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다. 정보 통
 신 기술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
 용하느냐이다.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 **선택**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 ① ㉠ ② ㉡ ③ ㉢ ④ ㉣

18 ④

밑줄 친 문장은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
 간이 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의 ‘선택’이 가장 적절하다.

19.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의 이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이
 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을 상승 조로 하느냐
 하강 조로 하느냐에 따라 의문문도 되고 평서문도 된다. 이 경우
 억양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 억
 양은 이러한 문법적 기능 이외에 화자의 태도와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하강 억양은 완결의 뜻을, 상승 억양은 비판의 뜻을 나
 타낸다. 억양에는 이처럼 발화 태도와 의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
 에, 이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

- ① 억양을 잘 이해할수록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 ② 억양은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 ③ 상승 억양에는 화자의 비판적 태도와 의미가 담길 수 있다.
- ④ 같은 문장이라도 소리의 장단에 따라 문장 유형이 달라질 수 있
 다.

19 ③

제시 글에서 ‘상승 억양은 비판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므로 ③
 의 내용은 적절하다.

- ① 억양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이러
 한 문법적 기능 이외에 화자의 태도와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므로
 억양을 잘 이해할수록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가 있다.
- ② 억양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
 나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소리의 장단이 아니라 억양을 상승 조로 하느냐 하강 조로 하느냐
 에 따라 의문문도 되고 평서문도 된다.

20.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까마귀 쓰호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까마귀 흰빛을 새울세라
 청강(淸江)에 일것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① 작자는 정몽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 ② 색의 대비를 통해 까마귀를 옹호하고 있다.
- ③ ‘새울세라’는 ‘고칠까봐 두렵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수사법상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20 ④

④ 풍유법과 대조법, 인유법이 쓰였다. ‘까마귀’와 ‘백로’를 각각 소
 인과 군자에 비유하여 대조시킴으로써, 끝까지 군자로 서의 삶을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3월 18일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2017. 03.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지켜 가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인유법(引喩法): 유명한 시구나 문장, 고사 따위를 끌어다가 자신을 표현하거나 보충하는 수사법.
- 풍유법: 나타내고자 하는 원관념을 문장 상에 직접 나타내지 않고 비유되는 얘기. 속담, 격언 등으로써 본 뜻을 짐작하여 알 수 있게 나타내는 방법.

- ① 작자에 대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정몽주 어머니의 작품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쓰러져가는 고려의 운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아들 정몽주를 위해서 지었는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으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어 정몽주를 초대할 때, 정몽주에게 지어준 어머니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다.
- ② 까마귀, 백로를 통해 색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까마귀 싸우는 골에 가지 마라'는 초장의 내용으로 보아 까마귀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까마귀'는 명리(名利)에 눈이 어두운 무리의 상징이고, 백로는 청렴결백(淸廉潔白)의 상징으로 대립시켜 놓았다. 세속의 무리들은 결백한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의 시조다. 따라서 여기에서 '백로'는 '정몽주'를 '까마귀'는 '이성계 일파'를 뜻한다.
- ③ '새울세라'는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니'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수사법상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조법: 까마귀의 검은 이미지와 백로의 하얀 이미지가 대조를 이룬다.

※출전: '백로가(白鷺歌)'

1. 해설: 정몽주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여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 시조를 지은 것이라고도 하며, 아들이 이방원이 초대한 연회에 나가려 하자 이를 경계하여 지은 것이라고도 한다. 까마귀, 백로 등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극단적인 암유로써 묘사했으며, '청강(淸江)'이라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자식의 장래를 염려하는 모정(母情)과 나라의 현실을 개탄하는 소극적, 여성적 인생관이 엿보인다.
 2. 작자 : 정몽주의 어머니
 3. 주제 :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는 모정(母情), 올바른 처신의 도리, 군자(君子)로서의 절의(節義)를 지키려 함.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경계함.
 4. 전문 풀이
 같은 까마귀 같은 간신, 소인배들이 모여 다투는 곳에 백로 같이 순결하고 강직한 자들은 가지 말아라.
 성이 난 까마귀들이 새하얀 너의 몸빛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니 청강에서 기껏 깨끗이 씻은 너의 결백한 심신(心身)이 더럽혀질까 걱정이 되는구나.
 5. 어휘 풀이
 - 까마귀 : 소인, 간신, 이성계 일파
 - 싸호는 : 싸우는
 - 골 : 골짜기
 - 백로 : 군자, 충신, 정몽주
 - 새울세라(식울세라) : 시샘할세라
 - 청강(淸江) : 맑은 강(물), 옛날 중국에 있던 푸르고 맑은 강으로, 지조 있는 선비들이 권력 등에 유혹을 받으면 여기서 귀를 씻었다고 함.
 - 죠히씨슨 : 깨끗하게 씻은
- [참고] 근묵자흑(近墨者黑)의 의미